



주 일 가 정 예 배 순 서 지

목 상 기 도 ----- 다 같 이
 신 앙 고 백 ----- 다 같 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
 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
 록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
 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 송 ----- 찬 송 가 310장 (내가 예수 믿고서) ----- 다 같 이

- 1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 2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 3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 4 주 언제 강림 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 곳도 난 알 수 없도다
- 후렴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 해주실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대 표 기 도 ----- 담 당 자

성 경 봉 독 ----- 시편 132편1-18절 ----- 다 같 이

- 생명수샘 9월 13일(주일) 생명수샘 말씀 -

설 교 ----- 성전과 왕을 위한 기도 ----- 인 도 자
 (뒷 면 참 조)

합 심 기 도 ----- 다 같 이

주 기 도 문 ----- 다 같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
 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
 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
 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지은 시편으로서 성전을 봉헌하는 시로써 쓰인 시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다윗의 모든 겹손을 기억'해 주실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겹손은 삼하 7:2에서 말하는 다윗의 겹손은 '자신은 백향목 성에서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에 있다'고 하며 근심하는 것입니다. 개역한글 성경이나 쉬운성경, 새번역 성경에서도 '역경, 어려움'으로 번역하는데 개역개정판에서만 왜 '겹손'으로 번역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의미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건축에 대한 사모함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위해서 서운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는 잠자는 것과 먹는 것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금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다윗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의 정확한 위치를 깨닫게 될 때까지 집에서 있을 때든지 잠을 잘 때든지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도 자기 자신의 일보다 하나님의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에 관심이 앞서야 한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축언합니다. 고후 5:8절에서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솔로몬이 말한 다윗과 같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안위와 나의 목적을 구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 일을 위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언합니다.

지금은 정말 교회를 위한 기도가 많이 필요할 때입니다. 초대교회 이후로 한 번도 교회가 핍박을 안 받은 역사가 없지만 지금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심지어 교회 내부에서까지 교회를 비판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하데 교회가 교회를 위해 기도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들이 기도가 필요한 때라고 인식하고 알고는 있으나 그것을 실천하는 성도의 수가 매우 적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 나의 목적을 위한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처럼 금식하면 잠도 자지 않고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최소한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지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다고 할 때 분명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미련한 행동이 아닌,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본문 12~15절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과 그 교훈을 지킨다면 우리의 후손들이 영원히 왕위를 지키며, 시온 우리가 거하는 곳이 하나님의 거처가 되고 영원히 쉴 곳이 되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빈민들이 만족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하지만 한다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빈민들조차 만족하게 떡으로 만족하게 된다는 것은 배부르게 먹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물질을 많이 구했습니까? 세상에 잘되는 것을 얼마나 많이 구했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런 것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과 함께 거사는 삶을 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부모님과 함께 산다고 하고, 그 부모님이 재벌이라고 한다면. 내가 1억이 필요한들 부모님이 안주겠습니까? 10억인 필요한들 안주시겠습니까. 내가 차가 필요하면 최고급 차로 사주실 것이고, 내가 해외여행을 가고 싶으면 최고의 관광지에 오성급 호텔과 퍼스트클래스 항공권으로 여행을 보내 줄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무엇을 아끼시고 무엇을 안 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삶,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복을 누리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꼭! 이러한 사람이 되길 축언합니다!